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및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

이 종 선[†]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강 민 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사고와 관련된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의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총 401명의 대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먼저 외적 속박감과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부적정서)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가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부정적 정서는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대학생들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살사고에 취약해질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살 사고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부적정서)가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정서대처 탄력성이 완충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적 속박감, 부정적 정서, 자살사고, 정서대처 탄력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종선 / Institute of Psychiatry /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De Crespigny Park, SE5 8AF
Tel : +44-(0)207-848-0518 / Fax : +44-(0)20-7848-0287 / E-mail : jongsunlee597@yahoo.com

최근 우리나라의 급증한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따르면, 2010년도 한해 자살자 수는 15,566명으로 하루 43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는 2008년도(12,858명)에 비해 무려 21%(2,708명)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율이 높은 헝가리(19.8명)나 일본(19.7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보도된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과 더불어 2010년도 우리나라 20대(20-29세)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었다는 점은 대학생들의 자살사건에 보다 많은 사회적 주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자살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2009년도 한해 249명이,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2009년도 202명, 2010년도 14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자살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생들의 경우 자살의 주된 이유가 가정 불화 및 성적비판인데 반하여, 대학생의 경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살 관련 연구나 치료적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정신 건강 관련 변인들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자살 시도나 자살 행위 자체보다는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현실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나 자살을 했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살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자살사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살을 할 확률이 6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Kuo, Gallo, & Tien, 2001), 자살 사고 자체가 자살 시도나 실제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자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들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국내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변인으로는 우울, 충동성,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계선적 성격, 무망감 및 심리적 극통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환홍, 백용매, 2010; 조하, 신희천, 2009;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연지, 서영석, 2011;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 가정 폭력, 약물 남용, 성폭력 과거력, 대인관계 문제, 소속감 등이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 사고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언급되어져 왔다(Agerbo, Nordentoft, & Mortensen, 2002; Cooper, Appleby, & Amos, 2002; Fortuna, Perez, Canino, Sribney, & Alegria, 2007; Garlow, 2002; Mackenzie et al., 2011; Wilcox et al., 2011; Wild, Flisher, & Lombard, 2004). Hawton과 van Heeringen(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도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들(우울, 조울 및 학업성적 저하)중 우울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는데(Lee, Kim, Choi, & Lee, 2008), 이런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이 그들의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속박감 또한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변인으로 제안되어져 왔다(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0). 속박감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예: 역경, 스트레스 사건)이나 내면의 고통스런 감정(예: 우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개념이다(Gilbert & Allan, 1998). 이런 속박감은 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처해 있거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 또는 대인관계 및 직업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의 상태를 “블랙홀”, “사방이 막혀 빠져 나갈 길 없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절박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관찰된다(Gilbert & Gilbert, 2003; Gilbert, Gilbert, & Irons, 2003; William, 1997).

속박감과 자살의 관련성은 최근 자해경험이 있는 입원환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Rasmussen과 동료들은 (2010) 반복적으로 자해를 했던 환자집단이 자해 경험이 한번 있었던 환자집단 및 자해 경험이 없었던 환자집단에 비해 속박감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사회적 지지 수준은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 및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부터 보고된 점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Connor(2003) 역시 자살 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위험 변인으로 패배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속박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

호작용을 보고한바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Wood, Gooding, & Tarrier, 2010). 이런 결과는 패배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간혀 있다는 속박감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기제임을 시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속박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주목해왔다.(Gilbert, 2001; Williams & Pllock, 2001). 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turman & Mongrain, 2008)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Allan & Gilbert, 2002; Gilbert & Allan, 1998; Goldstein & Willner, 2002; Troop & Baker, 2008)에서 잘 입증된 바 있다. 가령, Sturman과 Mongrain(2008)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거리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이 우울증의 재발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속박감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적 속박감은 임상집단 및 일반 대학생 집단이 보고하는 불안 및 무쾌감증(anhedonia)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자해 경험에 있는 입원 환자들의 불안수준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Connor, 2003; Rasmussen et al., 2010).

한편,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자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자살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탄력성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기원과 현명호 및 이수진(2010)은 자살의 보호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인 Linehan(1983)이 개발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를 변안하여 타당화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위요인은 생존 및 대처 신념으로 나타났는데, 이 하위개념은 어려운 역경이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지각, 평가 및 능력 정도를 재는 탄력성(Resilience)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Connor, 2006; Doll & Lyon, 1998).

자살에 대한 탄력성 개념은 스트레스 및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자기-평가(Positive self-appraisal) 능력으로 언급되어져 왔다(Johnson et al., 2010; Osman et al., 2004; Rutter, Freedenthal, & Osman, 2008). 최근, Osman과 동료들은(2004) 자살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면서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세 가지 영역에 걸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내적 보호 능력에 대한 평가로 삶의 대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능력에 관한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자살 생각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마지막은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울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하는 등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고통감이 있을 때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Johnson과 동료들(2010)은 절망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이 탄력

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를 정신증적 범주에 해당하는 환자들(예. 정신분열증, 정동장애)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세 개의 하위척도(정서대처, 상황대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탄력성 평가 척도(Johnson et al., 2010)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정서대처 탄력성 하위 척도만이 절망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망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자살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속박감이 우울, 불안 및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 및 불안은 자살사고의 유의한 예측 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우울 및 불안이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반 성인 및 우울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의 정서적 요인보다는 절망감의 인지적 요소가 자살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Beck, Steer, Beck, & Newman, 1993; Kuo, Gallo, & Eaton,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 등의 정서적 요소가 절망감 등의 인지적 요소보다 자살 사고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d, 1990).

또한 국내 청소년 및 군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인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현순, 김병석, 2008; 육성필, 2002)를 고려할 때, 인지적 변인인 속박감이

우울이나 불안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속박감과 우울 및 불안이 자살을 잘 예측하는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속박감과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우울, 불안 및 속박감을 경험하더라도 자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Cha와 Nock(2006)이 지적했듯이, 보호요인은 단지 위험 요인의 부재함을 넘어서서 특정 다른 변인이 위험요소(예: 우울, 불안)가 결과(예: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우울, 불안의 매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속박감에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중 외적 속박감만이 포함되었다. 이는 내적 속박감은 우울과의 관련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외적 속박감은 우울은 물론 불안 그리고 자살사고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Gilbert et al, 2002; O'Connor, 2003, Rasmussen et al, 2010; 이종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은 내적 속박감에 비해 우울, 불안 및 자살사고의 기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및 부적 정서(negative affect)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부정적 정서로 명명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우울, 불안 및 부적정서를 모두 포함한 이유는 우울 및 불안 모두 속박감 및 자살사고와 관련성이 높고, 우울과 불안의 공병율 또한 높으며(Kessler, Chiu, Demler, & Walters, 2005), 부적정서의 상승이 우울 및 불안의 공통 변량이라는 점(Chorpita, 2002), 그리고 최근 한 연구에서 우울, 불안 및 부적 정서가 자살 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Green, Chorpita & Aukahi Austin, 2009)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가설 및 가설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정적 정서는 자살사고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넷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외적 속박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다섯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부정적 정서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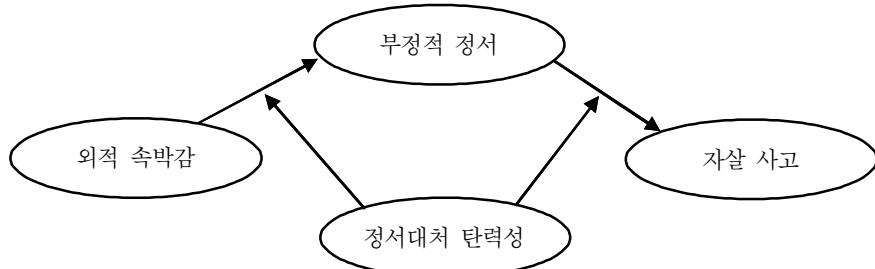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가설모형

방 법

연구대상

지방소재 Y대학교 남학생 222명과 여학생 17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2.39세(표준편차: 1.89)였으며,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65세(표준편차: 2.93)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은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학년 9명 (4.1%), 2학년 132명 (59.5%), 3학년 43명 (19.4%), 4학년 38명 (17.1%), 여성의 경우 1학년 27명 (15.1%), 2학년 74명 (41.3%), 3학년 35명 (19.6%), 4학년 43명 (24.0%)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적 속박감척도(External Entrapment Scale, EES)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타당화한 외적 속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적 속박감(External Entrapment)’ 척도는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어판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는 .88(대학생 집단) - .89(우울증 환자 집단)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일반인의 임상수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병원 불안-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Zigmond와 Snaith(1983)이 개발하고, 오세만과 민경준 및 박두병(1999)이 표준화하였다. 우울 및 불안척도는 각 7개 문항의 4점(0-3점의 범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우울이 Cronbach $\alpha = .70$ 그리고 불안은 Cronbach $\alpha = .74$ 로 나타났다.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와 김은정 및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래 척도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 척도만 사용하였다. 부적 정서는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10개의 형용사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의 C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자살 사고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박광배와 신민섭(1990) 그리고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정서대처 탄력성 평가 척도(Emotion Coping Appraisal Subscale)

Johnson 등(2010)이 개발한 탄력성 평가 척도(Resilience Appraisal Scale, RAS)를 첫 번째 저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하위척도, 즉 정서대처 탄력성, 상황 대처능력 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대처 탄력성 하위척도만이 사용되었다. 영어판 원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대처가 .92, 상황대처가 .92, 사회적 지지가 .93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정서대처 탄력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91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는 구인의 측정이 단일측정도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동질적인 문항들의 총점인 문항군(item parcel)을 구성하였다. 단일 지시자(single indicat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측정오차를 특정 수치로 고정할 수도 있으나 (Jöreskog & Sörbom, 1996), 이러한 방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특정 잠재변인 측정을 위해 두 개의 관찰변인만을 이용할 경우 추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인 당 3개 이상의 문항군을 구성하였다. 요인의 수가 3개 이상이면 요인 당 2개의 측정변수만 있어도 모형이 판별되기는 하나 그 경우 모수 추정치가 불안정

해지는 단점이 있다(Kline, 2005). 이러한 이유에서 문항수를 고려해 외적 속박감은 3개의 문항군을 통해, 자살사고의 경우 4개의 문항군을 통해 측정하였다. 문항군의 형성을 위한 문항 추출은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매개모형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이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 모수추정치의 정확성이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에 매우 민감하며 또한 추정할 모수가 많아져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정서대처 탄력성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결과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순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인들 간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외적 속박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자살사고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외적 속박감이 다른 두 변수와 갖는 상관 크기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둘째, 부정적 정서가 높아질수록 자살사고 점수가 증가하였다.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특히 불안 수준이 자살사고와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 외적 속박감 1	-										
2. 외적 속박감 2	.79**	-									
3. 외적 속박감 3	.84**	.82**	-								
4. PANAS 부적정서	.56**	.52**	.53**	-							
5. HADS 불안	.61**	.58**	.56**	.62**	-						
6. HADS 우울	.52**	.46**	.49**	.45**	.51**	-					
7. 자살사고 1	.55**	.46**	.47**	.40**	.46**	.39**	-				
8. 자살사고 2	.48**	.39**	.46**	.34**	.43**	.40**	.71**	-			
9. 자살사고 3	.57**	.49**	.50**	.40**	.44**	.40**	.72**	.63**	-		
10. 자살사고 4	.50**	.42**	.45**	.37**	.45**	.38**	.76**	.68**	.78**	-	
11. 정서대처 탄력성	-.43**	-.38**	-.37**	-.40**	-.43**	-.36**	-.28**	-.22**	-.29**	-.31**	-
평균	8.05	7.01	6.78	21.22	6.39	5.58	1.03	1.32	1.17	.92	14.19
표준편차	3.66	2.83	2.86	6.53	3.11	3.27	1.56	1.60	1.82	1.40	3.39
왜도	.84	.42	.48	.44	.71	.50	2.00	1.56	1.67	1.86	-.33
첨도	.41	-.35	-.44	-.05	.20	-.33	4.47	2.62	2.29	3.67	-.25

** $p < .01$

가장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셋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다른 모든 변인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서대처 탄력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외적 속박감과 부정적 정서를 더 높게 느끼며, 자살사고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 통계치 중 왜도 및 첨도를 보면 특별히 큰 수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규성 위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왜도의 경우 그 절대값이 3.0, 첨도의 경우 10.0을 넘으면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왜도와 첨도 모두 자살사고1이 가장 높았는데 그 값은 왜도 2.0, 첨도 4.47로 변수변환을 할 필요

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검증 절차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과정'을 따랐다. 첫째 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 수준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요인부하하량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부하량 추정치에 대한 유의확률이 매우 작아($\phi < .001$) 측정의 경험적

표 2. 측정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다중상관 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1.00(.91)			.83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77(.88)	.03	26.69***	.78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81(.92)	.03	29.16***	.84
PANAS 부정적 정서 ← 부정적 정서	1.00(.74)			.55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52(.81)	.04	14.68***	.66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44(.65)	.04	11.94***	.42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1.00(.89)			.75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92(.77)	.05	18.78	.60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1.16(.86)	.05	22.03***	.73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92(.88)	.04	23.28***	.78

*** $p < .001$; 추정치 팔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타당도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자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라고도 불리는 (Long, 1983) 제곱다중상관의 경우, 대부분의 수치가 .60 이상으로 대체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 중 HADS 우울의 다중상관계수는 .42로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Kline(2005)은 모형평가에 SRMR, RMSEA,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충분 적합도 지수로, TLI와 같이 간명성을 고려한 다른 충분 적합도 지수를 보조지표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이기종, 2005). 이에 본 연구는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RMR, RMSEA, CFI, TLI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한편, 모형 카이제곱을 통한 검증가설은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χ^2 통계치를 보고는 하

되 모형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보면, $\chi^2(32) = 80.97$, SRMR = .03, RMSEA = .06, CFI = .98, TLI = .98이었으며, RMSEA에 대한 90% 신뢰구간은 .04~.08로 산출되었다. RMSEA의 경우, 적합 정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대체로 .05 이하는 매우 좋은 수준, .05~.08은 적절한 수준, .10 이상은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Browne & Chdeck, 1993). CFI와 TLI의 경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SRMR의 경우 .10 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05).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하고 있으며, RMSEA 신뢰구간 역시 평가 기준인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의 자료 부합 수준이 양호하였으므로, 다음 단계인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측정 모형인 확인적 요인 분석모형을 매개모형(외생변인: 외적 속박감, 매개 내생변인: 부정적 정서, 결과 내생변인: 자살사고)으로 재설정하였다. 자살사고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수치와 모수추정치를 살펴보았다. 부분매개모형의 각종 통계치는 표 3에, 완전매개모형에 대한 통계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경로의 방향을 살펴보면, 외적 속박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수준은 외적 속박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또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제곱다중상관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부분매개 모형에서의 부정적 정서가 .65, 자살사고가 .45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의 변량 중 65% 정도를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의 변량 중 약 45%를 외적 속박감과 부정적 정서가 설명하였다. 완전매개모형에서의 다중상관계수는 부정적 정서가 .70, 자살사고가 .47로 종

표 3. 부분매개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직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1.20(.80)	.09	14.04***
자살사고 ← 외적 속박감	.13(.31)	.04	3.37***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11(.39)	.03	3.96***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13(.32)	.05	2.87**

** $p < .01$, *** $p < .001$; 추정치 팔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서 구해진 수치임.

표 4. 완전매개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직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1.21(.83)	.08	14.43***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20(.69)	.02	11.50***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24(.57)	.025	9.52***

*** $p < .001$; 추정치 팔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서 구해진 수치임.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에서의 제곱다중 상관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부정적 정서	.65	.70
자살사고	.45	.47

속 변인에 대한 설명량이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는 블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무선 표본 수는 1000으로 하였다. 편이교정(bias-correction)을 통한 블스트랩 95% 신뢰구간이 부분매개의 경우 .05~.24, 완전매개모형의 경우 .19~.29로 둘 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 있어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모형에 관계없이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과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먼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수치는, $\chi^2(33) = 90.47$, SRMR = .04, RMSEA = .06, CFI = .98, TLI = .97로, 모형의 합치 수준이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RMSEA에 대한 90% 신뢰구간 역시 .05~.09로, 매우 양호한 기준인 .05는 포함하되 좋지 않은 기준인 .10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절약성 원칙을 고려할 때, 완전매개모형에 대한 선택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χ^2 차이검증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chi^2_{\text{difference}} = 9.50(df = 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부분매개모형에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하는 것은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하게 떨어뜨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비록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우

수하기는 하나 부분매개모형에 비하여 그 적합도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완전매개모형을 기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다집단 분석

외적 속박감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정서대처 탄력성이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서대처 탄력성 수준을 임의적으로 범주화한 결과, 198명은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으로, 나머지 203명은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집단(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먼저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에 두 집단 간 등가제약을 걸어둔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기저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은 $\chi^2(64) = 104.45$, SRMR = .03, RMSEA = .04, CFI = .98, TLI = .98이었으며,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71) = 112.43$, RMSEA = .038, CFI = .98, SRMR = .030, TLI = .98이었다. RMSEA의 90% 신뢰구간은 기저모형의 경우 .03~.05로, 측정의 동일성 모형의 경우 .02~.05로 산출되었다. 측정 동일성 모형에서의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등가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두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 검증결과 역시, $\chi^2_{\text{difference}} = 7.98(df = 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p > .10$)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각 모

표 6. 측정 동일성(요인부하량 등가제약) 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1.00(.89)			.82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78(.89)	.03	24.71***	.79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84(.91)	.03	27.31***	.78
PANAS 부적정서 ← 부정적 정서	1.00(.77)			.60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51(.80)	.04	13.36***	.63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42(.67)	.04	10.95***	.44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1.00(.87)			.76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93(.82)	.05	18.78	.68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1.14(.85)	.05	22.05***	.72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91(.88)	.04	23.28***	.77

*** $p < .001$;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형의 요인부하량 추정치와 제곱다중상관은 표 6과 표 7에 제시 되어있다.

표 7을 통해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들의 비표준화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측정변수들이 정서대처 탄력성 저·고 집단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인 두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외적 속박감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직접효과 계수에만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먼저 모든 경로계수에 집단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74) = 125.16$, RMSEA = .04, CFI = .98, SRMR = .04, TLI = .98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외적 속박감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직접효과 계수에만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의 χ^2 차이가 $\chi^2_{\text{difference}} = 10.43(df = 2, p < .01)$ 으로 나타나 모든 경로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각하였다.

이어서 각 집단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들(표 8)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에서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영향력이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약 .25 배 높았으나, 그 영향력의 유의성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사고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은 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이 약 8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유의미성 역시 정서 탄력성 저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gamma = .16, s.e. = .16, p < .001$). 즉,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에서의 부정적 정서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gamma = .02, s.e. = .02, p > .05$).

표 7.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

	정서대처 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저	1.00(.90)			.81
	고	1.00(.90)			.81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저	.73(.88)	.04	17.90***	.78
	고	.83(.86)	.05	17.32***	.73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저	.78(.90)	.04	18.56***	.81
	고	.89(.93)	.04	20.23***	.86
PANAS 부적정서 ← 부정적 정서	저	1.00(.79)			.62
	고	1.00(.62)			.39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저	.47(.78)	.04	10.63***	.61
	고	.59(.54)	.08	7.84***	.64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저	.41(.67)	.05	9.11***	.45
	고	.45(.53)	.07	6.15***	.29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저	1.00(.87)			.76
	고	1.00(.84)			.71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저	.97(.84)	.06	15.14***	.70
	고	.85(.66)	.08	10.08***	.43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저	1.14(.85)	.07	15.47***	.72.
	고	1.13(.83)	.08	14.07***	.70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저	.90(.87)	.06	16.20***	.76
	고	.93(.88)	.06	15.03***	.77

** $p < .01$, *** $p < .001$;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 .04, $p > .05$). 세째,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gamma = .21$, $s.e. = .07$, $p < .01$). 즉,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02$, $s.e. = .05$,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 정서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가설과 다르게 정서대처 탄력성이 외적 속박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구 모형에서의 경로계수에 대한 모수추정치

직접효과	정서대처 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저	1.30(.77)	.12	10.54***
	고	1.05(.79)	.11	10.43***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저	.16(.53)	.16	4.04***
	고	.02(.07)	.04	.47
자살사고 ← 외적 속박감	저	.16(.31)	.04	4.30***
	고	.16(.31)	.04	4.30***
간접효과	정서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저	.21(.41)	.07	2.92**
	고	.02(.05)	.05	.40

*** $p < .001$; 추정치 팔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서 구해진 수치임.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적 속박감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정서는 외적 속박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대처 탄력성은 부정적 정서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및 부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외적

속박감은 통제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상황에 속박되어 있다는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외적 속박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더 취약해 질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이 우울 및 불안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Allan & Gilbert, 2002; Gilbert et al., 2002; Gilbert & Allan, 1998; Sturman & Mongrain, 2008).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통제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경험이 반추나 자기초점화된 생각을 통해 불안 장애 및 우울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Nolen-Hoeksema, Larson, & Grayson, 1999; Watkins, 2008), 속박감이 반추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Gilbert, Cheung, Iron, & McEwan, 2005), 속박감

이 반추의 매개 작용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다면 속박감이 우울에 미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우울, 불안 및 부적정서가 자살사고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Green, Chorpita, & Aukahi Austin, 2009; Langhinrichsen-Rohling, Arata, Bowers, O'Brien, & Morgan, 2004). 특히 우울과 자살사고의 유의한 관련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왔지만, 불안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과적 병력 중에서 자살을 예측하는 세 번째 순위가 불안장애라는 점과 (Hawton & van Heeringen, 2009),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3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Sareen et al., 2005), 불안장애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했을 뿐 아니라, 불안장애를 수반한 기분장애가 기분장애 단독으로 자살을 예측하는 것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불안 장애 중 공황 장애와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Olfson et al., 2000; Strauss et al., 2000; Weissman, Klerman, Markowitz, & Ouellette, 1989)는 공황장애와 사회불안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외적 속박감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의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외적 속박감에 대한 인지가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적 속박감이 직접적으로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할수록 우울하고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상승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요소인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김현순, 김병석, 2008; 육성필, 2002).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모형을 확증함으로써,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개입을 할 경우, 인지적 요소보다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적 속박감이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적 속박감이 직접적으로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절망감과 속박감은 통제감의 상실과 관련된 비관론적인 지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속박감은 통제감에 대한 상실 뿐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에 대한 높은 동기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절망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자살생각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고통스런 현실로

부터의 탈출에 대한 욕구”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William(1997)이 제안한 Cry of Pain model(고통 호소 모델)에 따르면 높은 속박감은 자살에 대한 전조신호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속박감이 측정하고 있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동기가 자살사고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만약 반복 검증되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를 다루는데 있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 및 대인관계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지각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특히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대처 탄력성이 외적 속박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된 반면, 부정적 정서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 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적 속박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기 쉬운데,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중에서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경우 자살 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절망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정서대처 탄력성이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Johnson

et al., 2010). 특히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통한 외적 속박감의 자살 사고에 대한 간접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우울하고 불안한 대학생의 경우 정서대처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면 자살사고에 대한 취약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외적 속박감에 대한 지각이 높고 따라서 우울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잘 조절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다면 자살사고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 중 자살 사고에 대한 취약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정서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확증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에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지방 소재 한 대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생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표본을 특정 짓는 결과일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집단(예: 일반성인, 임상 집단)에서도 이런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를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가 횡단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우울 및 불안이 속박감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자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뿐 아니라 기분 및 속박감 유도

기법을 통한 실험연구가 추후 필요하다.셋째,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는 부정적 정서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 정서 외 다른 변인이 외적 속박감과 자살 사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외적 속박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살사고가 속박감이나 우울에 의해 설명되는 기제는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사고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먼저, 대학생의 자살사고를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외적 속박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은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자살 사고를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상담 및 치료장면에서 외적 속박감의 수준 및 외적 속박감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적 속박감은 자살사고에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의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외적 속박감을 줄일 수 있는 인

지적 측면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적 속박감,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트레스 및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치료적 개입이 우울, 불안뿐 아니라 향후 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201-219.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 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 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정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 (1999). 병원 불안-우울 척도에 관한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2), 289-296.
- 육성필 (2002). 자살관련 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기종 (2005).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국민대학

교출판부.

- 이종선, 조현주. (2012). 한국판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239-259.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 조 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정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통계청 (2011). 2010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Agerbo, E., Nordentoft, M., & Mortensen, P. B. (2002). Familial, psychiatric, and socioeconomic risk factors for suicide in young people: Nested case-control study. *BMJ*, 325, 74-77.
-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3), 551-565.
- Anderson, J. C., & Ga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2), 139-145.
- Borowsky IW, Ireland M, Resnick MD. (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s: risks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3), 485-493.
- Browne, M. W.,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a, C. B., & Nock, M. K. (2009). Emotional intelligence i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4), 422-430.
- Chorpita, B. F. (2002). The tripartite model and dimensions of anxiety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structure in a large school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77-190.
- Connor K. M. (2006). Assessment of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 Supplement 2: 46-49.
- Cooper, J., Appleby, L., & Amos, T. (2002). Life events preceding suicide by young peopl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 271-275.

- Doll, B., & Lyon, M. A. (1998). Risk and resilience: Implications for the delivery of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services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7*, 348-363.
- Fortuna, L. R., Perez, D. J., Canino, G., Sribney, W., & Alegria, M. (200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lifetim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Latino subgroup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8*(4), 572.
- Garlow, S. J. (2002). Age, gender, and ethnicity differences in pattern of cocaine and ethanol use preceding suicid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 615-619.
- Gilbert, P. (2001). Depression and stress: A biopsychosocial exploration of evolved functions and mechanisms. *Stress, 4*, 121-135.
- Gilbert, P., & Gilbert, J. (2003). Entrapment and arrested fight an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using focus group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2), 173-188.
- Gilbert, P., Allan, S., Brough, S., Melley, S., & Miles, J. N. V. (2002). Relationship of anhedonia and anxiety to social rank, defeat and entrap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 141-151.
- Gilbert, P., Cheung, M., Irons, C., & McEwan, K. (2005). An exploration into depression-focused and anger-focused rumin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in a student population.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03), 273-283.
- Goldstein, R. C., & Willner, P. (2002). Self-report measures of defeat and entrapment during a brief depressive mood induction. *Cognition & Emotion, 16*(5), 629-642.
- Greene, F. N., Chorpita, B. F., & Aukahi Austin, A. (2009). Examining youth anxiety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context of the tripartite model of emot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4), 405-411.
- Hawton, K., & van Heeringen, K. (2009). Suicide. *Lancet, 373*(9672), 1372-1381.
- Hirsch, J. K., Wolford, K., LaLonde, S. M., Brunk, L., & Parker-Morris, A. (2009).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suicide ideation.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0*(1), 48.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ohnson, J., Gooding, P. A., Wood, A. M., & Tarrier, N. (2010). Resilience as positive coping appraisals: Testing the schematic appraisals model of suicide (SA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3), 179-186.
- Johnson, J., Gooding, P., Wood, A., Taylor, P., Pratt, D., & Tarrier, N. (2010). Resilience to suicidal ideation in psychosis: Positive self-appraisals buffer the impact of hopeless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9), 883-889.
- Johnson, J., Wood, A. M., Gooding, P., Taylor, P., & Tarrier, N. (2011). Resilience to suicidality: The buffering hypothe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4), 563-591.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6). *LISREL*

-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essler, R. C., Chiu, W. T., Demler, O., & Walters, E.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617.
- Kisch, J., Leino, E. V., & Silverman, M. M. (2005). Aspects of suicidal behavior, depression, and treatment in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spring 2000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surve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3-1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uo, W. H., Gallo, J. J., & Eaton, W. W. (2004). Hopelessness, depression, substance disorder, and suicidali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9(6), 497-501.
- Kuo, W., Gallo, J. J., & Tien, A. Y. (2001). The 13-year follow-up of a community samples in Baltimore, Maryland. *Psychological Medicine*, 31, 1181-1191.
- Langhinrichsen-Rohling, J., Arata, C., Bowers, D., O'Brien, N., & Morgan, A. (2004). Suicidal Behavior, Negative Affect, Gender,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3), 255 -266.
- Lee, H. S., Kim, S., Choi, I., & Lee, K. U. (2008). Prevalence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iatry investigation*, 5(2), 86.
- Leenaars, A. A. (1996). Suicide as a multi-dimensional malais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 221-235.
- Leenaars, A. A. (1999). Suicide across the adult life span: Replications and failur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5, 263-276.
- Leenaars, A. A. (2002). In defense of the idiographic approach: studies of suicide notes and personal docum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6, 19-30.
-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 Chiles, J. A. (1983).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76-286.
- Long, J. S. (198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preface to LISREL*. Beverly Hills: Sage.
- Mackenzie, S., Wiegel, J. R., Mundt, M., Brown, D., Saewyc, E., Heiligenstein, E., et al. (2011).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students accessing campus health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1), 101-107.
- McLaren, S., & Challis, C. (2009). Resilience among men farmers: The protective roles of social support and sense of belonging in the depression-suicidal ideation relation. *Death Studies*, 33, 262-276.
- Nolen-Hoeksema, S., Larson, J., & Grayson, C.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61-1072.
- O'Connor, R. C. (2003). Suicidal behavior as a cry of pain: Test of a psychological model.

-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4), 297-308.
- O'Donnell L, O'Donnell C, Wardlaw DM, Stueve A. (2004). Risk and resilienc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ity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nd Latino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2), 37-49.
- Olfson, M., Shea, S., Feder, A., Fuentes, M., Gaineroff, M., & Weissman, M. M. (2000). Anxiety, depression, and substance abuse in an urban primary care clinic. *Archives of Family Medicine*(9), 876-883.
- Osman, A., Gutierrez, P. M., Muehlenkamp, J. J., Dix-Richardson, F., Barrios, F. X., & Kopper, B. A. (2004). 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1, 2. *Psychological reports*, 94(3c), 1349-1360.
- Rasmussen, S. A., Fraser, L., Gotz, M., MacHale, S., Mackie, R., Masterton, G., et al. (2010). Elaborating the cry of pain model of suicidality: Testing a psychological model in a sample of first-time and repeat self-harm pat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1), 15-30.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1), 16-30.
- Rutter, P. A., Freedenthal, S., & Osman, A. (2008). Assessing protection from suicidal risk: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 *Death Studies*, 32(2), 142-153.
- Sareen, J., Cox, B. J., Afifi, T. O., de Graaf, R., Asmundson, G. J. G., ten Have, M., et al. (2005). Anxiety disorders and risk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of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11), 1249.
- Shneidman, E. S. (1985).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hneidman, E. S. (1996). *The suicidal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uss, J., Birmaher, B., Bridge, J., Axelson, D., Chiappetta, L., Brent, D., et al. (2000). Anxiety disorders in suicidal yout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45(8), 739.
- Sturman, E. D., & Mongrain, M. (2008). Entrapment and perceived status in graduate students experiencing a recurrence of major depress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3), 185-188.
-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 Tarrier, N. (2010). Appraisals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36-247.
- Troop, N. A., & Baker, A. H. (2008). The specificity of social rank in eating disorder versus depressive symptoms. *Eating Disorders*, 16, 331-341.
- Tucker, I.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Van Orden, K. A., Witte, T. K., James, L. M., Castro, Y., Gordon, K. H., Braithwaite, S. R., et al. (2008).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the mediating role of belonging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4), 427-435.
- Watkins, E. R. (2008). Constructive and

- unconstructive repetitive thought. *psychological Bulletin*, 134(2), 163.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issman, M. M., Klerman, G. L., Markowitz, J. S., & Ouellette, R. (1989).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panic disorder and attac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1(18), 1209-1214.
- Wilcox, H. C., Arria, A. M., Caldeira, K. M., Vincent, K. B., Pinchevsky, G. M., & O'Grady, K. 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ersistent suicide ideation, plans, and attempts during colleg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7(1-3), 287-294.
- Wild, L. G., Flisher, A. J., & Lombard, C. (200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ix domain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7, 611-624.
- Williams, J. M. G.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har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Williams, J. M. G., Crane, C., Barnhofer, T., & Duggan, D. S. (2005). Psychology and suicidal behaviour: Elaborating the entrapment model. In K. Hawton (Ed.),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icidal behaviour: From science to practice* (pp.71-89).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M. G., & Pollock, L. R. (2001).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suicidal process. In K. van Heeringen (Ed.), *Understanding suicidal behaviour* (pp.76-93).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Zigmond, A. S., & Snaith, R. P. (1983).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7(6), 361-370.

원고접수일 : 2012. 5. 04.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7. 10.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8. 29.

제재결정일 : 2012. 9. 06.

**The Effect of External Entrapment on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
and Moderating Effect of Emotion Coping Resilience**

Jong-Sun Lee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Min-Chul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Hyunju Cho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risk and protecting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 total of 401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First, the question of whether external entrapment and negative affec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whether negative affec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 in relation to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is moderated by emotion coping resilienc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negative affe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indicating that external entrapment not only has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negative affect, but also has a direc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such a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 appeared to be moderated by emotion coping resilience. In particular,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 coping resil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 protected from being susceptible to suicidal ideation, even if both groups suffer from similar levels of negative a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affect (e.g., depression, anxiety), which is well known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suicidal ideation, buffers against its pernicious impact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xternal entrapment, negative affect, suicidal ideation, emotion coping resilience